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짧은 말씀 묵상집 (21)]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 신자들에게는 ...

새 신자들에게는 격려의 말고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31-32, 현대인의 성경).

생각들의 차이를 극복하여 교회의 화목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말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칭찬(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들의 차이를 극복하여 교회의 화목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쳐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14:14-20, 현대인의 성경).

서로 돕는 은사

교회의 일꾼들 중에는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2:28).

우리의 자매인 뵈뵈같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되

주님의 종 사도 바울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러한 자매는 우리가 성도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6:1-2, 현대인의 성경).

서로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지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인 형제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로마서 12:16, 현대인의 성경).

서로 받아줘야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채소만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의 의견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려서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무것이나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서로 받아줘야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로마서 14:1-3, 현대인의 성경).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영적인 축복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참고: 로마서 1:10-12, 현대인의 성경).

선동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하는 교인들 중에는

다른 교인들을 선동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결국에는 주님의 종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도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4:2, 19, 현대인의 성경).

선입관을 뛰어넘지 못하고 변화의 기회를 마음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 찾으라"(사도행전 9:11)는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만나셔서 변화시켜 주신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옛 기억에 근거한 선입관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여 가서 그 사람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그 "사울"은 절대 "바울"로 변하지 않을꺼야 라고 단정 짓고

변화의 기회를 우리 마음에서 차단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5).

선한 일 vs. 악한 일

우리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합니다(로마서 16:19).

우리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요한삼서 1:11, 현대인의 성경).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베드로전서 3:17, 현대인의 성경).

선한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옛 성품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18, 현대인의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과 영생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31).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해야 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28:23, 31).

성경의 결론은 ...

성경의 결론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28,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가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다는 것입니다(로마서 4:2-3,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6 절, 현대인의 성경).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로마서 15:31, 현대인의 성경).

성도들의 호감을 사려는 샅군 목사?

목사가 주님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호감을 사려고 그/녀(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매우 잘못행하는 것입니다

(참고: 시편 99:4; 사도행전 24:27; 25:5, 9, 현대인의 성경).

“성도들”이란 ...

“성도들”(골 1:2)이란 거듭난 신자들로서

원어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분리된 사람들’(separated ones)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이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성도들이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분리)시킨 사람들입니다

(The saints are separated to God, separated by God, and separated from the world).

달리 설명하자면,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목적(God's purpose)과 하나님의 일(God's service)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KJV 성경 주석).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자들이요(시 31:23),

예수님의 증인들이요(계 17:6),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자들이요(시 30:4),

기도하는 자들이요(계 5:8),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요(계 19:8),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요(계 14:12),

영광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시 149:5)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1-7, 현대인의 성경).

성령 총만함과 술취함

성령 총만한 12 명의 사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하며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총만함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3, 15,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5 장 18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총만함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또 막으실 때 ...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또 막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여러 방법으로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성으로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판단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9-10,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2:4,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26-27,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22:37, 39; 갈라디아서 5:22).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고린도전서 2:10).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1:17,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들며,
놀라 당황하며 또한 신기하게 여기게 만들고
또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묻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6-12,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말로 설명해야지
인간의 지혜의 설득력 있는 고상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야지
인간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2:1, 4, 11, 13,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뜻이 우리의 결정이 되어 합니다.

성령님의 뜻이 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 되어 합니다
(사도행전 15:28,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역지를 막으시고 또 허락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는

분명히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성령님의 막으심과 여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령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도 선교라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성령님의 막으심에 겸손히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바른 목적을 관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닌가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미련함이 아닌가요?

바른 목적과 바른 마음의 동기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6:6-10,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타고 있는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달려가서"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26-30, 현대인의 성경).

그 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 장 7 절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고: 사도행전 8:32,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의 답변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성경 말씀(이사야 53:7)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사도행전 8:35).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사역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지로 가면서
그 가는 길에 투옥과 고난일 자신을 기다린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22-23, 현대인의 성경).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24 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선포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선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가는 교인들 앞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54-55, 현대인의 성경).

세례 교인, 계명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세례 받은 교인보다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교인이 더 낫습니다
(참고: 로마서 2:26-27, 현대인의 성경).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15:13).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자가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6:6-7, 현대인의 성경).

순수한 사랑으로 ... (1)

순수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12:9, 15, 현대인의 성경).

순수한 사랑으로 ... (2)

순수한 사랑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길 기원합니다

(로마서 12:9, 13, 현대인의 성경).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갑니다

(로마서 12:5-9, 현대인의 성경).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10:23-24, 현대인의 성경).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교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교회는 직분자를 잘못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6:1-6).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결국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므로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씁니다
(로마서 10:2-3).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고린도전서 3:18-19, 현대인의 성경).

스스로 잘난 체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스스로 잘난 체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6, 16; 고린도전서 14:4, 현대인의 성경).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로마서 1:18-22, 현대인의 성경).

습관적으로 알고 짓는 죄로 말미암아 ...

습관적으로 알고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8:7, 현대인의 성경).

시기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유대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도 시기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7:18; 사도행전 5:17-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시편 37:1).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3:3, 현대인의 성경).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16).

시기(질투)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 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야곱의 10 명의 아들의 요셉을 향한 "시기"도 사용하셔서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고 그 형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45:5, 7; 사도행전 7:8-15, 현대인의 성경).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극심한 가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보전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13, 현대인의 성경).

시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당면한 시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피할 길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16:6-10; 고린도전서 10:13; 고린도후서 5:7).

“신실한 형제들”이란 ...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골 1:2)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신실한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는 형제들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이란

- (1)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요(full of faith),
- (2) 신뢰하는 사람들(trustful)이요,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trustworthy)로서
- (3)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loyal to Christ)입니다(KJV 성경 주석).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계 1:5)

흠 없이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며(시 101:6, 현대인의 성경),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눅 16:10),

죽도록 충성하여(계 2:10)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주님의 칭찬(눅 19:17)과 더불어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계 2:10).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때에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과 함께 팀 사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1-2, 현대인의 성경).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사야 26:3; 사도행전 24:27; 25:9, 현대인의 성경).

심한 논쟁과 심한 말다툼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로 인해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5:1-2, 36-41, 현대인의 성경).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니면 화려한 교회인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함께 지켜 나아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니면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교회의 화려함만을 함께 홍보하는 교회인가?

(참고: 시편 133:1, 사도행전 6:5; 에베소서 4:3)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20,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 22:20).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되(로마서 8:29-30)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셔서

(빌립보서 3: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2,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20, 현대인의 성경).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도 ...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참고: 로마서 4:17-21, 현대인의 성경).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지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4-28; 에베소서 2:8-9,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바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6-10; 로마서 8:26-27,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세상 적으로 지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

바보라는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친구인 유대인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6-7,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세상 적으로 지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치유의 기적 같은 행하는 자기 친구 목사가
거짓 목사인 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위해서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위해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선에 속하여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9, 17, 21).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로마서 12:9, 17, 현대인의 성경).

악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8-19, 28-32, 현대인의 성경).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18, 25, 현대인의 성경).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아무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아무도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1-35, 현대인의 성경).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몰라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가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한 것을 다 듣고 나서는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사도행전 11:1-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17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우리가 행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믿음(마 15:10,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
모든 사람들이 주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5:1,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복음 전도 선교지로 떠나는 주님의 종을 배웅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소명)에 순종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 선교지로 떠나는 주님의 종을 배웅할 때에
비록 그 주님의 종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매우 슬프고 눈물이 나올지라도
그 주님의 종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서로 작별하고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36-38; 21:4-6, 현대인의 성경).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19, 현대인의 성경).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한 마음으로 만나서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사도행전 2:46, 현대인의 성경; 시편 133:1, 새번역)

"에바다"("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1, 19).
예수님의 말씀인 "에바다"(뜻: "열리라")가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7:34).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3:48).

영적 스승과 영적 멘토를 모시기보다 ...

영적 스승과 영적 멘토를 모시기보다

영적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4:15, 현대인의 성경).

영적 지도자는 ... (1)

영적 지도자는 좇는 자들의 물질을 탐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행전 20:33, 현대인의 성경).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무엘상 12:3).

영적 지도자는 ... (2)

영적 지도자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사도행전 20:35).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것을 알고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것을 알고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건물인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케 하며

그 기초 위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건물인 성도님들보다 교회 건물과 같은 외부적인 것을 세우는데 더 헌신을 하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그 헌신을 요구합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2:6; 3:11-12; 골로새서 2:7; 히브리서 5:14,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1, 5,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은 열심으로 ...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감행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으며
또 그들을 죽이는 데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 대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사울은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 26:9-11,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요한복음 16:2).
하나님께 대하여 사울의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로마서 10:2).
이렇게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은 열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므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므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전하므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로마서 10:14, 17; 빌립보서 1:25; 데살로니가후서 1:3,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그 한 영혼을 얻고자 스스로 그의 종이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19-27,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따듯이 맞아 주고 받아줘야지
그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14:1-10; 고린도전서 9:22-23,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과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1; 데살로니가전서 4:14-17,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목회자는 ...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목회자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1, 8-9,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할 수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
(사도행전 4:14, 16,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1:27).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는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사도행전 1:8; 13:38).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15:1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 받은 사울(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사도행전 9:20, 22).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로 부터 난 자(거듭난 자/중생한 자)라고 말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요한일서 5:1, 4-5).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거듭난 자/중생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1, 4 절, 현대인의 성경)]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한 심한 논쟁을 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 저기 들려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해 주어 그 곳 모든 신자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 해결에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심한 논쟁까지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나눔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줄이야 ...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에 가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1-2, 18).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귀를 막고 큰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52-58,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마태복음 9:3; 26:65; 마가복음 14:64; 누가복음 5:21)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마태복음 27:22; 마가복음 15:13; 누가복음 23:21; 요한복음 19:6, 15)
스데반이 자기들이 그 이유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에게 계속 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5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42-4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엨 2:1, 현대인의 성경; 요일 4:9).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6-7, 현대인의 성경).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7-18, 현대인의 성경).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8; 갈라디아서 5:13, 공동번역).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사도행전 13:39).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4, 현대인의 성경).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2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16, 현대인의 성경).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3:39).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로마서 1:17, 현대인의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이나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19; 신명기 33:9).

오히려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은 신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기보다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고린도전서 6:7-8, 현대인의 성경)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 신자들은 각자 힘 달는 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십시다(참고: 사도행전 11:28-29, 현대인의 성경).

옳은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듣기를 속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옳은 판단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23; 사도행전 4:17-19, 현대인의 성경).

왜 그리도 선물의 값을 스스로 매겨서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칭의)과 구원(영생)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도 선물의 값을 스스로 매겨서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참고: 로마서 3:24; 에베소서 2:8-9)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진흙 한 덩어리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라고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쓸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의 권한을 도전하여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완고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9:20-21, 현대인의 성경).

왜 내가 당하는 시험이 그리도 크게 보이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인데 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그리도 크게 보이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크게 보이는 시험조차도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시험을 크게 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10:13, 현대인의 성경).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새로워지지 않는 것일까?

왜 아직도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사도행전 3:19; 로마서 12:2; 요한일서 2:17, 5:14, 현대인의 성경).

왜 십자가인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친히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스데반 집사처럼(사도행전 7:5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2:23,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처형법인

돌로만 쳐 죽여서는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큰 악한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 신성 모독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인의 사형수 처형법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21 장 23 절 때문입니다:

"...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 죄를 범했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였기에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0:13,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5:7, 새번역)

외국 신인 유대인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은

세상 적으로 똑똑한 엘리트 사람들에게는

외국 신인 유대인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 같고

수다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7:18, 현대인의 성경).

외면당하고 있는 교회?

지금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교회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

그만큼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사도행전 7:41-42)

외식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모세를 저버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도 따르지도 말라는 가르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사도행전 21:20-21, 현대인의 성경).
바울은 모세를 저버리지 않았고,
할례를 꼭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15:1-2)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마가복음 7:8-9)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이나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가르침과 복음의 합당한 삶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마음속으로 라도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이 만일 우리 안에 보인다면 우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귀의 경향?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귀신 들린 한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들었던 로마 관리들은

군중들까지도 그 주인들과 한패가 되어 비난하자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한 후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도행전 16:20-2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귀가 한쪽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경향과

소수의 사람보다 군중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과

그들의 비난에 더 민감한 경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일 때 주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우리 모두에게 제일 필요한 것!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16:9-10).

우리 속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 ...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복음 대적 자들에게 어려움과 핍박까지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도행전 26:1-8).

그 때에 우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모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15).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우리의 원수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은 것일 텐데 ...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우리의 원수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은 것일 텐데

성경은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 갚은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 사람의 본능을 뛰어넘어(초월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44; 로마서 12:19-20, 현대인의 성경).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남풍과 태풍

우리 인생에는 순하게 불어오는 남풍으로 인해 우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한 불어 닳치는 태풍으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를 접하여 시달리면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으며 또한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도 있어 그 남풍을 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13-18; 28:13,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징계를 통해 ...

교회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징계를 통해 음행의 범죄를 행하는 자의 육체는 파멸되더라도 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4-5,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로마서 9:19-21,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당면한 시험이 크면 클수록 ...

우리가 당면한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을 감당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10:13,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1-2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지도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지도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행사가 일치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16-17,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0:9-1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음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로마서 12:1-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적이요 외식적인 선입관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율법적이요 외식적인 선입관을 무너트리실 수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0:28,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그 때마다 다른 주님의 제자들은 힘써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사도행전 9:22-30).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세력도 힘써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시사 힘써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

우리는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1-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8:7-9, 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3:19; 요한일서 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18, 20; 요한일서 5: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부모님과 목사님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순종해야겠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과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29,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6:1).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목사님까지도 외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신명기 33: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6:2, 4; 에베소서 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로마서 8:5-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사랑하는 형제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심장마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Tim 을 생각하면서

(참고: 사도행전 4: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21-2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육신에게 저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저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9, 12-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의 종에게 칭찬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고
그 종이 우리에게 전해 준 교훈을 그대로 잘 지킴으로
주님의 종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종에게 칭찬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1-2; 데살로니가전서 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7:2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사도행전 13:43).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의식이 강해야 합니다(공로 의식을 배척해야 함).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5:10).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3:43-44; 예레미야 12:16).

우리들도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3,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15, 현대인의 성경).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11, 현대인의 성경).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52,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17, 현대인의 성경).

우리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사 우리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8; 13:47).

우리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고 마음이 완고한 이집트 왕 바로도 세우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고: 로마서 9:17, 18,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그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참고: 사도행전 18:6, 현대인의 성경).
에스겔 33 장 7-9 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여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시고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로마서 3:4-5,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거짓말도 사용하시는 진실 되신 하나님?

진실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드러내시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짓말)(로마서 3:7,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두려움을 돌이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19-20).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돌이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자자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19,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음행하므로 자기 몸에게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음행하므로 자기 몸에게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6:15-20,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본보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을 즐겨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우리 조상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1-6).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3-4,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악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21:23; 사도행전 2:36, 갈라디아서 3:1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우리의 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로마서 2:4-5).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와 최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7-8,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의무는 ...

우리의 의무는 세금도 잘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6-7,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존재

우리는 한 분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며,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6,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11,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책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5,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큰 위기는 우리를 강력한 큰 사람으로 빛은바 되게 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학대와 큰 괴롭게 함을 당하되 자식까지 죽임을 당하는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11-22, 사도행전 13:17,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큰 위기는 우리를 강력한 큰 사람(출애굽기 1:20, 현대인의 성경)으로 빛은바 되게 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정 핍박 자였던 자가 원정 핍박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사도행전 22:4-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14:19; 16:13; 21:27).
원정 핍박 자였던 자가 원정 핍박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6:21-23, 현대인의 성경).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7:22-25, 35, 현대인의 성경).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갈급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사도행전 27:23-25, 현대인의 성경).

위기를 복음 전파 기회로 ...

군중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1:27-22 장).
그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0:24).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마가복음 8:35, 현대인의 성경)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위선적인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

위선적인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너의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고 욕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참고: 사도행전 23:3-5, 현대인의 성경).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결과로 사망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5-8, 현대인의 성경).

율법으로 죄를 깨달게 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이유

율법으로 죄를 깨달게 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이유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요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로마서 3:20, 28; 갈라디아서 2:16; 3:11).

은사를 분수에 넘치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를 분수에 넘치게 사용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으로 인해
교회의 연합성을 깎아 위험이 많습니다
(로마서 12:6, 현대인의 성경).

의도적으로 구조의 밧줄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살아야 하건만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구조의 밧줄을 잡으려는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구조의 밧줄을 끊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27:30-32, 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 vs.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만 불의한 사람은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습니다
(로마서 1:17-18, 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은 ...

의로운 사람은 깨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유익한 사람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진실 된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성공과 행복이 뒤따르는 사람이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로마서 3:10-18, 현대인의 성경).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의를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4:11, 에베소서 2:8, 현대인의 성경).
의를 행하되(요한일서 3:10)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2:6)
주님의 계명대로(3, 4 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3:11).

의아해 하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17, 20, 44-48).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10 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되 더욱 미움을 받고(창세기 37:4, 5, 8)

또한 그 형들의 시기로 인해(11 절) 죽임을 당할뻔하다가(18 절)

"한 구덩이에 던"져졌던 17 세의 소년 요셉(2, 20 절, 현대인의 성경)이

그리도 낮은 구덩이에서 결국 약 13 년 후인 그의 나이 30 세 때(41:46)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41 절).

10 명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사도행전 7:9)를 받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되어

결국 바로 왕은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덩이에 있었던 요셉을 높이시되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시사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지옥에서 영원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까지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전에 썩어질 것의 종살이 하면서 헛된 것에 복종하던 육신을 따라 살던 죄인이

이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로마서 8:20-21, 현대인의 성경)

이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10 명의 형들에게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를 받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8-10, 현대인의 성경).
이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하.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본받아 타락하고 있으니 ...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본받아 타락하고 있으니
주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8:12, 새번역; 사도행전 2:40; 로마서 12: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15, 새번역).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사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29-31)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5:1-5,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대로 음식 자체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더럽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형제는 그 음식을 먹는 형제를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형제는 그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형제 앞에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 형제를 근심하게 하므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음식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13-15,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죽인 우리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므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3:15; 로마서 6:23; 에베소서 2:1)

이단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인데
그러한 복음 전파자들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매도하는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도행전 24:5,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동역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6:3-4,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감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17-18,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에 ...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새 신자들도 많이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12:24, 현대인의 성경).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23:15).

이렇게 목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도들의 호감을 사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지 말아야 합니다(참고: 사도행전 24:16, 26-27, 현대인의 성경).

이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자기를 구출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요한(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는 말하는 로데라는 어린 여종에게 "네가 마쳤구나!"라고 말했고
그녀는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9, 14-15,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베드로나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놀라지도 않게 되었으니 ... ㅠ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이 행하는 사람의 죄악 된 일들로 인해
이젠 더 이상 놀라지도 않게 되었으니 ... ㅠㅠ (사도행전 2:43, 현대인의 성경)

인격이 연단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게 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이 결핍된 성도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무익 되게 하므로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인격이 연단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게 더됩니다

(참고: 로마서 5:2-4, 현대인의 성경).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위하여 3분의 2의 준비의 시간을 가진 모세

애굽에서 40살이 되었던 "어느 날"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모세요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난 "어느 날"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한 천사가 나타난 광경을 보았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7:23-24, 30, 36, 현대인의 성경).

모세는 40년 동안 이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80년이란 세월을 애굽과 미디안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삶을 보면

3분의 1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3분의 2의 준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암흑 기간?

주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시고 부르시사 사명을 주시는 과정에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9:9,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6 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어서 '곧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10-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두 사이에 사울은 사흘(3 일)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금식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흘" 동안 그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 장 40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어쩌면 우리에게 "사흘"(문자적으로 말고) 동안

"큰 물고기"와 같은 상황이든 "땅 속"과 같은 상황이든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든

인생의 깊은 암흑 기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암흑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아무 것도 보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 그때서야 구원의 주님만 전적으로 또한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때서야 주님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리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8:35).

인생의 폭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인생의 폭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아무리 밥맛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참고: 사도행전 27:33-34, 현대인의 성경).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약삭빠른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18-19, 현대인의 성경).

자기를 버린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은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에게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인들은 바울을 심문해 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 주려고 했지만

[마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 주려고

3 번이나 노력했던 것처럼(누가복음 23:4, 14-15, 22)]

유대인들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사도행전 28:17-19,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로마서 9:2-3, 현대인의 성경).

자신이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또한 원망(불평)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0:7-12, 현대인의 성경).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라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유가 있다할지라도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8-9, 현대인의 성경).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할지라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할지라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잠언 11:30; 고린도전서 9:19).

자칭 큰 자의 말을 듣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칭 "큰 자"(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요

사람들이 보기에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던 마술을 행하던 시몬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사도행전 8:9-13).

우리는 자칭 '큰 목사'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목사님처럼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16; 참고: 디모데후서 4:3).

장로교회의 큰 문제는 우리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처리하는 장로)입니다.

장로교회의 큰 문제는 우리 장로들(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처리하는 장로)입니다.

심는 사람인 목사님과 물을 주는 장로님이 하나가 되어 동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결핍돼 있고, 겸손하지 못하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참고: 고린도전서 3:5-10, 현대인의 성경).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39-40, 현대인의 성경).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댄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든 계층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하고 말했다는
말씀(사도행전 8:9-10, 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할 때
지금도 '시몬'같은 거짓 목사가 거짓 요술 같은 것을 하여
많은 교인들을 현혹하게 하므로 다양한 교회 사람들 그 거짓 목사를 보고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보다
목사가 행하는 요술 같은 능력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을 만족케 하는 시몬과 같은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ㅠ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17-18, 현대인의 성경).

제일 큰 위험은 우리가 그 길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제일 큰 위험은 우리가 그 길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도행전 27:10, 13, 현대인의 성경).

종교 문제? 율법 문제? 영혼 구원 문제?

원고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사도 바울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확신했겠지만
(사도행전 25:3, 11, 15, 현대인의 성경)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고 측에서 여러 가지 죄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하였고
또한 로마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문제와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7, 18-
19 절). 이방인인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는 종교 문제였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율법 문제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 구원 문제였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7:21-23, 현대인의 성경).

죄를 깨달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 나의 어두움 속에서의 범죄가 계속해서 들춰지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합니다
(참고: 로마서 5:20, 현대인의 성경).

"죄목"도 없는데 "죄수"라니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목"도 없는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하심(칭의)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고향을 치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의 노예가 되게 하여
자꾸만 우리에게 "죄수"복을 입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참고: 사도행전 25:27, 현대인의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

우리들 가운데도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9-11, 현대인의 성경).

**"주 에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 장 31 절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를
그 깊은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사 자다가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던 간수를
육신적으로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었던 영혼도 살려주시사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온 가족도 다 하나님을 믿게하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25-34).

성경은 "주 에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1 절).

'주님,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시편 115:1, 현대인의 성경)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앓은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여 주목할 때에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12,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13, 16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24, 현대인의 성경).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죄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동시에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천함과 멸시받음과 보잘것없음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6-31, 현대인의 성경).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만남의 축복은 ...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만남의 축복은
서로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고: 로마서 1:11-13).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칭찬하는 교인들 앞에서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칭찬하는 교인들 앞에서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인해
교회 건물은 사람들 보기에 웅장하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자체인 성도들은 맹인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인도함을 받는 맹인이 되어
들이 다 구렁이에 빠질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5:14; 고린도전서 3:5-7, 현대인의 성경).

주님, 장로님들을 보호해주세요.

우리는 장로님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믿는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23,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38,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요 6:1-15; 마 16:18)을 성취하시사
나를 통해 행하신 일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 로마서 15:18).

주님께서는 마땅히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스테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사도행전 8:1)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4:1,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마땅히 여겨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마땅히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 변화시켜주신 주님께서는 마땅히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

예수님의 빈 무덤에 일요일 새벽에 제일 일찍 왔다가(사도 요한과 베드로보다) 제일 끝까지 남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 날 저녁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 (요한복음 20:11-19, 현대인의 성경). 제 생각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던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제일 먼저(예수님의 제자들에게보다) 나타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마 22:37)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 때까지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20, 27, 29, 현대인의 성경).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연약한 본능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12, 현대인의 성경).

그 때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7, 현대인의 성경).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증거 없어도”

(새찬송가 545 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1 절과 후렴).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로마서 10:12).

또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로마서 3:22, 현대인의 성경).

또한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로마서 2:11,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골로새서 3:25,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야고보서 2: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짓 목사가 주님의 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던 아주 지성적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에게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는 주님의 별을 받아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었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이끌려 줄 사람을 찾"는 광경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3:6-12,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뜻이라면 세상 적으로 지성적인 사람이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짓 목사가
주님의 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돼 있다면 ...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만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돼 있다면
그 성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1:18-20,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힘을 얻어 다시금 오뚝이처럼 일으킴을 받은 제임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던 앓은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게 되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는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3:1-11, 현대인의 성경).

앓은뱅이처럼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spiritual depression)되어 있었을 때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약속인 요한복음 6 장 1-15 절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이사야 57:15)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119:107,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힘을 얻어
다시금 오뚝이처럼 일으킴을 받은 저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말씀에 붙잡힌바 되어 이끌림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계속 퍼져나갈 때 ...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계속 퍼져나갈 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19:17-20,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변화된 사람에 대한 옛 선입관을 가지고 다가가기는커녕
사귀려고 다가오는 그 변화된 사람을 두려워서 머뭇거리든 물리칠 때에도
그 변화된 사람의 삶 속에 행하신 주님의 일과
그 변화된 사람이 행한 주님의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림으로
그 변화된 사람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내도록 중재 역할을 잘 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9:26-28,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일꾼을 반대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총만한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주님의 일꾼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
다른 교인들까지 매수하여 그 일꾼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거짓증인들로 하여금
그 일꾼에 대하여 거짓증거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6:8-1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교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종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사도행전 4:29,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을 함부로 비판(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을 함부로 비판(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께서 그가 서든 넘어지든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

주님의 종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어쩌면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3:45).

주님의 파송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 속에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19, 21).

주님의 파송 메시지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현대인의 성경)](출애굽기 4:13).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지만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3:1-3).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면서

주님 중심된 일꾼들을 보냅니다(파송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오직 자기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35; 고린도전서 4:1-5, 현대인의 성경).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주여 누구시나이까"에게 보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여 누구시나이까"라고 묻는 사울에게 "가서 ...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5, 10-11).

주일 하루라도

"날마다"는 못할지라도 주일 하루라도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6, 현대인의 성경).

죽는 한이 있더라도 ...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15, 현대인의 성경).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니라 죽기까지 용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This Age)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도 용서 못해!"라고 말하지만,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에 속한(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용서합니다

(누가복음 23:34; 고린도전서 15:40, 48, 49; 빌 3:20; 요한일서 5:19).

죽여 없애는 것

군중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요한복음 19:15)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로마군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은 "없이 하자"고 외쳤습니다(사도행전 21:36).

저 무지한 군중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 전파자들(마가복음 8:35)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한 복음 전파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마가복음 8:35)

죽을 것도 각오하고 복음 전파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복음 전파자를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1:12-14, 현대인의 성경; 참고: 요나 1:13-14).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일 음모를 꾸미고
또한 실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23:4, 14, 22-46; 사도행전 9:29; 20:3, 19; 23:16, 30; 25:3, 11, 현대인의 성경).

죽이던 자가 죽임을 당하는 ...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은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사도행전 9:20-2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로마인들에게 고소하였지만
로마인들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14, 15, 22; 사도행전 23:29, 현대인의 성경).
죄 없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종교 신념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젓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2:6, 3:1-3; 히브리서 5:11, 14, 현대인의 성경).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전적으로 힘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진정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찬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2, 현대인의 성경).

지금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지금 나는 목사로서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것입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2:1-5, 현대인의 성경).

지금 우리는 ...?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로마서 2:24)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에 어긋난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로마서 2:23; 빌립보서 1:27)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어두움에 다니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8:12; 로마서 2:19-20; 에베소서 5:8, 11)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잔뜩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앓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면 구걸했을 때

아마도 은이나 금까지 얻을 것을 기대했다 할지라도

설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걸을 줄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1-8, 현대인의 성경).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잔뜩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욘기 31:2, 누가복음 24:21, 현대인의 성경)

비록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전도서 11:8,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해 주시는(빌레몬서 1:21, 현대인의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20, 현대인의 성경).

지금도 성령님은 ...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2:4-11, 현대인의 성경).

지금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종을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종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2:33, 35:15; 사도행전 3:26, 현대인의 성경).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종이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10:15).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가정 파괴자나 교회 파괴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던 사울이(사도행전 5:42, 현대인의 성경),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사명을 받은 후부터는(9:3-7)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면서(20:20-21,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우리는 가정 파괴자나 교회 파괴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만 증거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므로(빌립보서 1:27)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모세요 요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75 명의 친척들을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사도행전 7:14, 현대인의 성경)
신약의 요셉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13).
그리하신 목적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습시다(15 절, 호세아 11:1).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모세요 요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를 애굽과 같은 사탄의 나라에서 탈출시키시사
진정한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므로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8-9; 사도행전 15:9-10, 현대인의 성경).

참 기독교인, 진정한 세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참 기독교인이 아니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세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기독교인이며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참고: 로마서 2:28-29, 현대인의 성경).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죄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한몫 거들며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덩달아 그 죄 없는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고: 사도행전 24:9, 현대인의 성경).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놓고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을 죽여 놓고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28, 현대인의 성경).

천국에 가서 받을 우리의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는 것과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천국에 가서 받을 우리의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18, 현대인의 성경).

철저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몰래 뒤에서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도행전 13:2, 20-21, 현대인의 성경).

철저하게 참는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일서 4:8,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요한복음 3:16).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3: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16,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철저하게 참으며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충만한 믿음에는 ...

충만한 믿음에는 충분한 고난도 있습니다

(참고: 마가복음 15:23; 빌립보서 1:29).

타락한 성품에서 신의 성품으로 ...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므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2-3; 베드로후서 1:4, 현대인의 성경).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1:2, 5; 에베소서 1:4; 요한일서 4:19, 현대인의 성경).

특별한 동정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정성껏 대접해 준다면 ...?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하여 친절히 대해주며
여러 날 동안 우리를 정성껏 대접해 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사도행전 28:1-10)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누가복음 6:31, 현대인의 성경).

판단해서 처리할 능력을 상실한 교회?

교만한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서 악의와 최악의 묵은 적은 누룩과 같은 악한 사람이
반죽 덩어리인 교회 전체를 부풀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해서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런 악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과 사귀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6-7, 11-13, 현대인의 성경).

평소의 습관대로

저는 평소의 습관대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베뢰아 사람들과 같은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17:1-2, 10-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직분자들의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시편 133:1; 사도행전 6:5; 에베소서 4:3).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1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녀의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녀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녀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5-8; 에베소서 2:8-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4: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는가?

(참고: 사도행전 23: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도행전 20:3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14:6-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환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듯이(사도행전 10:9-48),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므로 결국 그녀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사도행전 16:13-15).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좋지만 ...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절제가 되지 않은 열심이라면 그러한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교회의 연합성을 깰 위험이 많습니다
(로마서 10:2; 12:11; 빌립보서 3: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로 받아야 합니다(로마서 15: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로 뜻이 맞아들여서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2, 6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를 해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사도행전 12:1-2, 2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를 해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난(중생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새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고: 로마서 2:14, 15,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5:17;
베드로전서 1:3, 새번역; 요한일서 5:1, 4).

하나님께서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

하나님께서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네이버 사전)]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2:4; 3:2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 미리 선택한 예수님의 증인들 ...

하나님께서서 미리 선택한 예수님의 증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서 예수님을 3 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39-4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31; 로마서 8:3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

의인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인도 아닌 오히려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7-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죽는 것보다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신 죽을 수 없는 원수를 위해 죽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를 통해 실재화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는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로마서 4:13; 에베소서 2: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우리 시대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구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서는 실제로 그 부모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7:46-4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우리 시대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종에게 ...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사도행전 22:14-1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1:8).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참고: 요한일서 1:1-3).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서 겸손히 덕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알아주십니다(고린도전서 8:1, 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누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시길 기원합니다(참고: 로마서 16:2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말이 나눌 때
우리의 말을 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1:19-20).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15-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건물인 성도들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우리는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하나님의 건물인 성도들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기초 없이 맨 땅에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교회는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6:49; 고린도전서 3:9-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명과 세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세례가 가치가 있지만
그 계명을 어기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참고: 로마서 2:2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목적

하나님은 심판(예: 애굽)을 통해 (예: 이스라엘)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참고: 사도행전 7:7; 요한복음 4:22-24).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12-13; 히브리서 10:2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0:15, 28, 44-4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팀 사역을 하므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18: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라 할지라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15).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4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유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에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어도 되지만
그 음식을 먹은 것이 남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므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고 내가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10:25-3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적이요 외식적인 선입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이 사실조차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0:34-3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2:4, 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인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인들은
목사님의 계획과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도 모르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계획과 일로 생각하기에
그 계획과 일을 반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6:23; 사도행전 5:38-39,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부모님은 ...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말을 하므로
그 자녀를 잘못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23; 사도행전 5:29; 요한일서 5: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되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로마서 1:28-31, 현대인의 성경).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종을 집에 초청하여 ...

하나님의 종을 집으로 초청하여 꼭 필요한 것 한가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 종을 대접하려고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누가복음 10:38-42; 사도행전 10:22, 3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28; 로마서 5:9; 에베소서 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서로에게 한 약속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참고: 로마서 15:8; 민수기 30: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로마서 9:15-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에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과연 진노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하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긍휼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멀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긍휼의 그릇은 '왜 멸망 받아야 할 진노의 그릇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습니까?'라고 토기장이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에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참고: 로마서 9:20-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텐데 ...
(로마서 13: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16-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0:38, 현대인의 성경).

하늘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는데 ...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고인 우리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칭의)고 이미 판결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인 사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고인 사탄이야말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참고: 시편 7:11; 50:6; 82:1; 이사야 33:22; 사도행전 10:42; 25:23-24;
로마서 3:24; 6:7; 8:30, 33; 데살로니가후서 1:9; 디모데후서 4:8; 야고보서 4:12, 현대인의 성경).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0, 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을 두셨을 때에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이 이 교회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서로에게 '당신은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18-21, 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이 소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 벌이 사업이 잘 되서 잘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볼 때 같은 다른 영업하는 자들과 직원들을 불러 놓고
돈 벌이 사업을 위협하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마치 위험인물처럼 몰아가고
그 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까지 있다고 말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분노가 가득하게 할 때
한 도시까지도 온통 소란해져서 군중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떠들어대며
야단법석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군중들을 진정시키는 것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 벌이가 잘 되서 잘 살고 있다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본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소란입니다
(사도행전 16:16, 19; 19:24-36, 현대인의 성경).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소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아는 그 지방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먼저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사도행전 16:1-3, 현대인의 성경).
비록 바울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15:1, 현대인의 성경) 그의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의 원리대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고린도전서 9:20,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의 원리를 배워서
실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식탁 교제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선입관이나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극복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영역과 식탁 교제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도행전 11:1-3; 마태복음 15:1-9, 현대인의 성경).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습니다
(사도행전 13:22, 36, 현대인의 성경).

함께하며 나누는 공동체?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요 또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44-46, 현대인의 성경).

과연 지금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쩌면 주님께서 흠으실 것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은 교회는 무너트리실 것입니다.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며
(로마서 1:28, 현대인의 성경)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으며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하시사 환란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1:28; 2:5, 8-9, 현대인의 성경).

형제, 자매들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형제, 자매들과 나눠야 합니다
(사도행전 14:27, 현대인의 성경).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참고: 사도행전 26:20, 현대인의 성경).

"흉년"으로 말미암은 "큰 어려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의 시대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든 "흉년"으로 말미암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의 "큰 어려움"도 사용하셔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시대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의 그의 열 두 아들들 및 후손들을

외국 땅인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 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6, 11-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 세 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